

저속한 표현? ‘닥치고’

요즘 유행하는 말 ‘닥치고’. 포털 검색창에 ‘닥치고’라고 치면 다양한 검색결과가 뜬다. <닥치고 공연> 이것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YB 밴드와 힙합듀오 리쌍의 전국 투어 콘서트 이름이다. <닥치고 꽃미남밴드>는 작년 1월부터 네이트에 연재된 웹툰 제목이다. 그리고 책 <닥치고 정치>. 아마도 ‘닥치고’라는 말을 유행시킨 것은 이 책이 아닐까 싶다.

‘닥치고’라는 말은 드라마에서도 사용되었다. 작년 8월부터 KBS-2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일일시트콤 제목이 <닥치고 패밀리>, 줄여서 <닥패>다. 드라마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홀아비(열석환)와 이혼녀(우신혜)가 만나 한 가족을 이룬다. 이들 두 집안은 그 성씨(姓氏)만큼이나 다르다. 외모로 보나 집안 분위기로 보나 모든 면에서 열성 가족은 열등하고, 우성 가족은 우월하다. 도저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가족이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가며 결국 하나의 가족을 이룬다는 것이 제작진이 밝힌 기획의도다.

지난 1월 초 방송된 <닥패> 102화를 시청했지만 소재나 내용이 모두 건전했다. 이른바 ‘막장 드라마’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도 드라마 제목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닥치고’라는 표현이 드라마 제목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저속하다는 것이다. 급기야, 한 시청자가 KBS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닥치고’라는 표현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2012가합626)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닥치고’라는 말의 의미다. ‘입을 다물고’의 저속한 표현임을 주장하는 신청인에 대해 KBS 측은 기발하게 대응했다. 즉, ‘<닥치고 패밀리>는 “가족 해체의 위기와 갈등의 순간이 닥쳤다” 또는 “어떠한 상황이 도래한 가족”의 의미를 담은 것일 뿐, “입을 다물고”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항변한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닥치다’를 찾아보면, 그 의미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다’와 ‘입을 다물어 말을 그치다’ 두 가지로 나온다. KBS의 항변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닥치고’의 최근 사용례와 일반 시청자의 시각을 근거로 ‘입을 다물고’의 의미로 봤다.

두 번째 쟁점은 ‘닥치고’가 방송에 써서는 안 되는 저속한 표현인지 여부였다.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옮겨본다.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여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저녁 시간대에 주 5회 반복하여 방영되는 일일 시트콤 드라마의 제목을 <입을> 닥치고 패밀리로 정한 것은, 방송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와 시트콤 드라마의 속성을 충분히 배려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에서의 전파성 및 시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외주제작사가 정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일부러 용인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고”

판결문에는 ‘닥치고’가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결론만 나올 뿐, 그렇게 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근거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자명한 이치인가? 분명 아쉬운 대목이나, 어쨌든 법원에서는 저속한 표현임을 인정했다.

그러면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법원은 ‘닥치고’라는 표현이 자극적이고 저속함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사용금지가처분신청 자체는 신청인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드라마 제목에 저속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도 아니고, 인격권이 침해된 것도 아니니 시청자가 문제 삼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KBS의 승리로 끝나는 듯했던 이번 사건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다. 법원 기각 결정 이후, 방통심의위에서 드라마 제목을 문제 삼아 주의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국, 지난 연말부터 드라마 제목은 <닥치고 패밀리>에서 그냥 <패밀리>로 바뀌고 말았다.

‘닥치고’가 공격적이고 센 표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저속한 표현인지는 분명치 않다. 또, 법리적으로 모든 저속한 표현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현재 ‘닥치고’라는 표현은 책, 공연, 만화, 드라마 제목에 이르기까지 두루 사용되고 있다. 여기엔 뭔가 불만스러운 현실에 대해 ‘닥치고!’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표현의 순화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거칠고 공격적으로 만드는 환경의 변화가 아닐까 싶다.



양재규 | 기획팀 팀장, 변호사